

■ 그림 여행



아이리스 (Iris es c. 1889)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1853-1890)

캔버스에 유채 71 cm x 93 cm 로스앤젤레스 폴 게티 뮤지엄

1889년 5월의 어느 날,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 생-레미에 있는 생-폴-드-모젤르 정신병원에 한 남자가 입원했다. 입원한 그 첫 주일부터 남자는 병원의 화단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남자의 이름은 빈센트 반 고흐였다.

고흐는 삶의 마지막 길에 서 있었다. 온 존재를 바쳐 그려 온 그림은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피폐한 삶 속에 정신병이 찾아 왔다. 그는 그림을 그

림으로써 무너져 내리는 정신을 잡고자 했다. 꽃이 만발한 병원 화단에 앉아 보라색으로 피어 난 아이리스 붓꽃 한 송이 한 송이를 그려 나갔다. 그는 그림 그리는 행위를 '내 병에 빛을 전해 주는 반도체'라 불렀다. 그림은 그에게 생의 마지막 끈이자 희망이었다.

청포 붓꽃은 그의 화폭 위에 아름답게 피어났다. 화면 아래 마지 손에 잡힐 듯이 피어났고 화면의 중앙과 상단 오른쪽으로 무리 지어 피어났다. 그 너머에는 노란 마리골드 금잔화들이 화단을 덮고 있었다. 그 무렵 유럽의 화가들처럼 고흐도 바다 건너 넘어 온 일본 우키요에 목판화에 영향을 받아 두꺼운 선과 대담한 색채로 그림을 구성했다. 완성된 그림은 평화롭고 수려하며 서정이 넘치는 한 폭의 정원 풍경화였다.

그림은 1892년 옥타브 미르보라는 고흐의 후원자에게 당시 돈 300 프랑에 팔렸다. 빈곤과 정신병 속에 고흐가 세상을 떠난지 2년 후였다. 백 년 후 1987년에 그림은 사상 최고의 경매가를 기록했다. 1990년에 폴 게티 뮤지엄에 도착하기까지 줄곧 역사상 가장 비싼 그림 중 하나로 손꼽혔고 그 기록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림 앞에 서서 생각한다. 봄바람이 부는 정원에서 꺼져가는 정신을 붙잡으며 골똥히 붓질을 하던 남자. 명징한 선과 보라색과 초록색의 완벽한 조화 속에 생의 마지막을 쏟아 부어 넣은 화가. 불행했던 인간은 사라지고 이 아름다운 그림만 남았구나. 하지만,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를 오롯이 기억하니 그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멸이다.

김동백

가든그로브 비타민 전문점

Organic Vitamins

- 500종류 정도의 비타민과 원료구비
- 비타민 원료 : 아사이, 마퀴, 블루베리, 고지베리베리, 아로니아, 그라비올라, 크랜베리, 비타민나무, 여주농축액, 차콜, 콜라겐, 블랙커런트, 모링가, 로얄제리원액, 페루산삼, 마카, 트리블러스(산삼보다 높은 사포닌 함유)



이제 비타민은 전문점에서 정확한 진단 후 복용하세요.



Tel. (714)534-4938

9972 Garden Grove Blvd #G
Garden Grove, CA 92844



www.unicaresurgery.com

애나하임

쾌적한 병원시설에서 만족한 의료시술을 경험하십시오.

UNICARE SURGERY CENTER

유니케어 수술센터
Tennis Elbow 시술센터



- 테니스엘보우 시술 • 관절수술/골절수술/척추수술
- 각종 통증수술

- ▶ UNICARE SURGERY CENTER
- ▶ Orthopedic/Podiatry/Plastic/Hand & General Surgery
- ▶ 줄기세포(Stem Cell), 자가혈청치료(PRP)
- ▶ 각종 수술 상담

미국보드 전문의와 최신 의료장비와 진료시스템으로 정확한 진단, 시술을 해드립니다.

각종 PPO보험/교통사고, 직장상해보험/메디케어 취급, 여행자보험, 기독의료상조



UNICARE
SURGERY CENTER

714-332-5000

1741 W. Romneva Dr. #B, Anaheim, CA 92801